

2018년 5월 24일

emerics@kiep.go.kr

브렉시트 이행기: EU-제3국 간 FTA의 영국 적용 관련 논의 동향



- EU-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단은 '20년 말까지 이행기(transition period)를 두기로 합의'
 - 합의된 이행기는 영국의 EU 탈퇴일('19년 3월 29일 예정)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현행 EU 체제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영국에 적용됨.
 - 단 대부분의 EU 차원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은 없음.
 - 브렉시트 이후의 EU-영국 관계 체결이 영국의 EU 탈퇴일 전에 완료되기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급격한 관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한 영국이 이행기를 요청²
 - 영국은 2년(~'21년 3월)을 제안했으나 영국의 EU 예산 참여 종료시점인 '20년 말까지로 합의됨.
- 양측은 기존에 EU가 제3국과 체결한 협약이 이행기 동안 영국에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EU의 FTA 상대국이 동 합의를 따를 것인지는 불확실함.
 - 브렉시트 협정 초안에 따르면 기존에 EU가 제3국과 체결한 협약은 이행기 동안 영국에 기존과 같이 적용되고, EU는 이러한 사항을 협약 상대국에 통보할 계획³
 - 그러나 전문가들은 협약 상대국이 이러한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지적⁴
 - 한-EU FTA는 EU측 당사자를 "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도출된 그들 각각의 권한 범위에서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으로 정의하므로, 브렉시트로 동 조약에서 탈퇴하게 되면 영국은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⁵

1) European Commission(2018), Draft 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r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highlighting the progress made (coloured version) in the negotiation round with the UK of 16-19 March 2018, Article 121.

2) Prime Minister's Office(2017. 9. 22), "PM's Florence speech," Speech.

3) European Commission, op. cit., Article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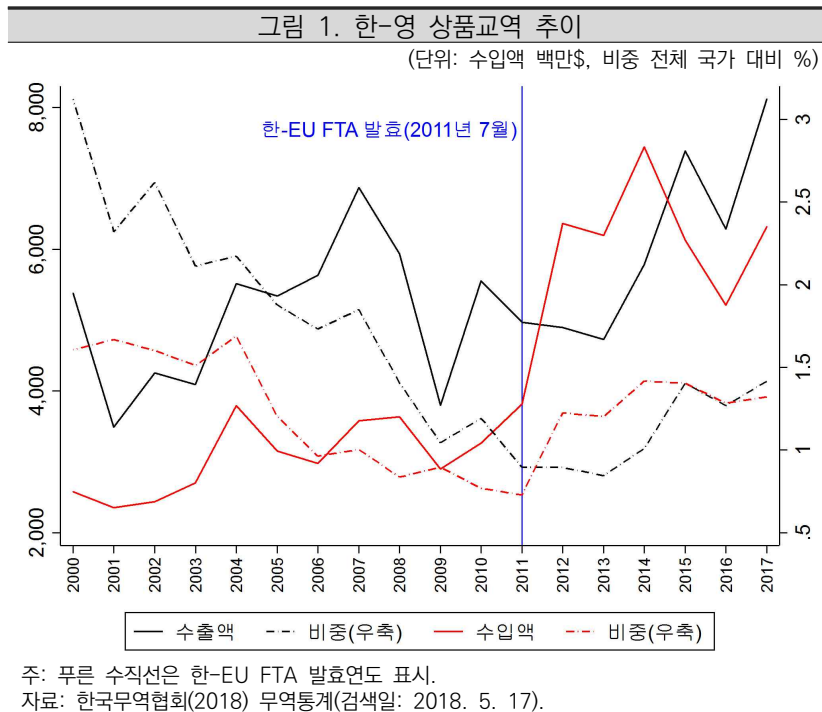
4) Fabry and De Toffol(2018), "Transition: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Brexit Galaxy," Policy Paper No. 218, Jacques Delors Institute, p. 19; Eeckhout and Patel(2017), "Brexit Transitional Arrangements: Legal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Brexit Insights November 2017, UCL, p. 8; Grey(2018), "Draft transition agreement: initial thoughts," <http://chrisgreybrexitblog.blogspot.kr/2018/03/draft-transition-agreement-initial.html>(검색일: 2018. 5. 17).

5) 한-EU FTA 협정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장 제1.2조.

- 이에 따라 일부 상대국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는 대가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체결할 FTA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예를 들어 칠레의 경우 농산품 추가 개방을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됨.⁶

□ 대(對)영 교역의 중요성, 한-영 FTA 추진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우리정부도 이행기 중 한-EU FTA의 영국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고민해야 함.

- [그림 1]이 보여주듯이 영국은 우리 상품수출의 1% 이상을 차지하고, 비아시아국가 중 미국, 멕시코, 독일 다음의 교역상대임.
 - 특히 한-EU FTA 발효 후 대(對)이란 제재 시기에 영국산 원유를 수입하여 에너지 수입원이 다변화되었고,⁷ 수출액도 증가하는 추세



- 한-영 FTA에서의 추가적 양보를 조건으로 고려할 수도 있으나 한-영 무역작업반에서 이미 진행해온 논의, 브렉시트까지 짧은 시간만이 남아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함.
 - 한-영은 브렉시트 이후의 양국 교역관계에 대비해 한-영 무역작업반을 운영 중으로, 이미 3차례 회의를 가졌음.⁸
 - EU와 최근 FTA를 체결한 일본(비준 진행 중)과 캐나다('17년 9월 잠정 발효)는 브렉시트로 인한 재협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됨.⁹
- 한-영 무역작업반의 기존 목표가 '19년 3월(브렉시트 시점) 새 협정 발효였으므로 무역작업반 업무를 위해서도 동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임.¹⁰ **EMERiCs**

(작성: 조동희 부연구위원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구미팀)

6) Burchard(2018. 2. 2), "EU trade partners demand concessions for Brexit transition rollover," Politico.

7) 박동위(2013. 12. 12), 「해외생산원유 최초 국내 직도입」, 『투데이에너지』.

8) 김호철(2018), 「결별 그 후? 영국-EU가 그리는 미래관계」, 『나라경제』2018. 5.

9) Burchard, op. cit.

10) 김호철, 앞의 책.